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안덕면 대평리 오연수, 김영희 해녀 인터뷰 -2

해녀: 오연수(1955년생, 23세 때 결혼), 김영희(1957년생, 21살 때 결혼)

인터뷰 일자 : 2019. 06. 24.

인터뷰 : 좌해경(Q로 기록),

해녀 : 오연수(A로 기록), 김영희(B로 기록)

Q : 육지물질이나 그 일본물질 제주와 다른 점이 뭐디가, 바다는?

B : 다른점이 별로 엇입디다. 다 물건도 똑같고 양, 전복도 똑 곱고, 구제기도 똑꼴고 다 있는 것이

Q : 그대로 예?

B : 예, 경헌디 거기는 이 저, 돌 아래 곰치괘기가 고냥마다 이신답디다 일본은. 그게 무서원게, 물질허믈

Q : 저기 제주도는 곰치 없지 양?

B : 엇우다게.

A : 물질, 우린 강원도 저 신암가난 다른점이 많읍디다게. 거기는 이 소라도 엇고, 저 겨울엔 가난 미역, 미역만 해그네, 이 줄미역 해그네 뭇 안허그네, 거기는 붙이는 미역, 제주도? 치 하나식 안 넣어그네 막 혼단 두단에 그런 거. 경허여그네 미역해여그네 그 우린 고무옷도 안 입을 때난, 한번 들어가그네 허영 나오곡, 또 한번 들어낙 해오곡 허면은 바당사는 암주들이 그땐 “암주암주” 험디다게. 바당에 사는 암주들이 와그네 그걸 다 씹어 가. 경허면은 가에서 너는 사름이 있어 예. 게민 거 널곡, 전주덜해그네 그거영 보멍 다 넣어그네 미역행 팔아그네 똑같이 우리가 한 배에 열사름씩 가난 예, 다름점. 거난 그거 허여그네 미역행 그 옛날에 우리 열일곱술에 갈 때도 그 옛날에 오만원 허여그네 친정더레 보내곡, 또 미역 끝나면은 해삼허고 성계, 그디 앞앙귀렌 험니다. 솜 솜. 그거 잡아그네 팔월 멧질¹⁾ 때 되면은 그거에 올 때 제주도 들어오젠 허민 사과 저 박스 나무박스로 험겔로 훈박스 사곡, 선물이렌 험건. 그 거 사와그네 멧질 해먹곡. 여담들 아홉덜 살아웁니다. 정월에 나강. 일월달에 강 시월달 구월달 나야 들어오곡. 경헌디 제주도 바다허고 틀려 예, 물리 물이 그렇게 실루와²⁾, 막 추워. 강원도는, 그렇게 하고. 또 통영이 통영군 한산면 비진리 가난, 제주도 물이나 마찬가지로, 거기는 다 있어 예. 그 옛날에는 멧계가 그렇게 많아. 자연산 돌멧계가 그렇게 많읍디다게. 경허고, 그 디 가면은 저 이녁 바당만 안허영 양, 예를 들면은 동카름허고 대평허는 그 경계에 막 도둑질 물질허듯이 보내곡게, 우리 어릴 때난 도둑질 물질은 강 허지도 못허여. 겁냥 영영 고개만 들멍 휘어만 덩기다그네 고무옷도 안 입고 허민 추우민 와볼곡 해신디, 제주도허고 다른점이 강원도 가난 완전 다름디다게. 다르곡.

Q : 거믈, 그 암주는 돈을 산사람?

A : 예, 바당 돈 산사람

Q : 그다음에 아까 객주? 아까 뉘렌 또 무슨 소리 했잖아 예, 객주?

1) 멧절

2) 차가워.

A : 아니, 암주 암주렌 험디다. 강원도 가난, 암주. 암주는 예를 들면 마을에 회의 험 때, 총회 험 때, 이렇게 모이면은 는³⁾ 이바당 사라, 저바당 사라 험때, 굿이백이(??) 허듯이 돈 쥘 사. 거른 거보고 암주라 험니다. 그 암주가 배 탕 와. 해녀 멧사름 해그네, 예를 들면 우리 대국허민 대국허는 해녀는 이만이 있고, 또 저기 마국은 마국허는 해녀가 있꼭 험디다 예, 배가 가면은 강원도 우리가 간 땐 신암 가난 배가 세척 험디다 예. 거난 전주 가, 전주 전주.

Q : 전주는?

A : 전주는 해녀덜을 모집해 가는게 전주.

Q : 아, 전주

A : 예, 전주허고. 암주는 바당 산 사름이 암주. 겐 우리가 간에 그걸 해수다.

Q : 거른 전주는 뱃사공이 주로?

A : 예, 뱃사공, 배임제, 전주는. 경허여그네 해녀덜해그네 부하로 먹는거라예. 예를 들어그네 미역이 열단 허면은 우리가 여섯단 주면은 지네는 네단 먹고, 그런식으로 험디다예. 그런 식으로 해그네 그걸 또 팔아그네 보내주고, 옛날 육지 갈 때 경 험디다.

Q : 으응, 팔앙 돈 보내주고

A : 예, 팔앙 돈 보내주고예. 그 옛날에 갈 때는 보리 썰, 보리 썰. 보리 썰 훈뒤에 서말씩 먹는데 허여그네 스물닷말 거난 스물닷말씩 마다리로 무지무지 현걸로 묶영, 흥글영 묶어그네 붙영, 배로 둥그령, 강원도까지 배로 가곡, 차로 해그네 큰 트럭으로 몬 싣어당 그디까지 강 이십니다. 게민 우리가 살명 그 집주인네 집이 놔 뒤서양, 바당 췌그네 물질 못 험 땐, 산에 강 나무 해오렌 해영 나무 허여당 불 때면은 머리뺨에 이영오는 사름, 정 오는 사름 허고, 강원도 가난, 순 감자가 유명해노난 겨울에 감자 싹 하나도 엇인디 주인이 감자 강 캐어오민 그걸 뱃겨그네 우리가 먹고, 또로 저 문어 같은 거는 강원도 가난, 문어도 양, 하나 7르치민 잡지도 못험디다게. 모살에 하도 큰거라부난 잡아낼 수가 없어. 막 눈만 이만이 해그네 해노니 무서웁 못 잡아

B : ㅎㅎㅎ

Q : 사름만이 허?

A : 예, 못잡으면 머구리, 그 주변에 버꾸기로 태워 갔당 머구리로 와그네 캐야되어. 사름은 못잡아.

Q : 너무 커부난

A : 예, 그처럼 큰 문어도 강원도 여름에 갔을 때 봐수다게. 경허연 무서웁 당초 못잡아 그거는. 경허연 그거 암주 전주허는 거는 그거, 그거고 예.

Q : 그 디서 오연수계장님 곱은 경우는 얼굴도 예쁘고 허난 막 결혼 그디서 허켄 허는 남자도 있어실 건디

A : 우리 어린 때난. 우린 그 때 양, 아니 진짜주게. 그 때 어린 때는 남자덜 오는게 막 그 분시가 모르난산디 미와만 뷔영. 줌 장, 바당에 갔당 지청 줌만 자젠 허는디, 우리 언니네는 나이가 먹으난, 그 아무래도 남자에 대해, 성에 대해 아는구라, 남자가 오민 곱이 나가곡 경허는디, 우린 경 안허여그네 막 육행 부에나그네, 이제 제주도 말로 부에낭 해가민, 육지 스나이덜 우리들 보고 제주도 간 아이덜 가그네 어멍 췌덜 더 먹영 오렌 허멍 어렸던⁴⁾, 어렸던. 경허명 막 해나수다게. 아니, 우리영 간도 양 여기 대평사름도 살암수

3) 너는

4) 어리다. 나이가 적어 철이 덜 들다.

다. 몇 사람

Q : 물질

B : 결혼허연. 물질 갔단 하영 살았수다

A : 예, 신암, 살았수다. 정수도 살았고, 그디 저 대포사름도 서이가 살았수다. 세사름허고, 갔다그네 남자들허영 살아부런게.

Q : 해녀노래도 요즘 공연들이영 허곡 햄지 예?

A : 예, 예, 예.

Q : 해녀노래 공연이영 예?

B : 예

Q : 노래 연습도 잘 허시고 예?

A : 노래 연습은 이제

Q : 강경자 회장님은

A : 강경자 완에 배웠수다.

B : 배웠수다

Q : 아, 요즘도 햄수과?

A : 예

Q : 일주일에 한번씩?

B : 예

Q : 아이고, 경해도 장 왕 가르쳐주영 다행이여게 예? 해녀노래

A : 이번 전주 가젠 허난, 전주 가젠 허난에 그 춤, 춤도 가르천에 배웠수다게. 곶이 선생님 이영 따라 갈 거.

Q : 예

A : 전주 시월 십삼일날 가젠 허난

Q : 누가 춤은 가르쳐 주고?

A : 춤은 그 저 흥춘이, 아니 흥춘이 과장님허고, 고인숙이 그 저 주무관님이 모연에, 거기서 아는 사름 현에, 보낸에, 남자가 왕 춤춘디 양, 남자가 춤 가르치는디 야들야들허게 가르칩디다.

Q : 아, 잘 가르쳐? 거문 직접 해녀분들 해가지고 연습허는 거지 예

A : 예 연습 직접

Q : 몇 명?

A : 십삼명이

Q : 아, 십삼명이? 그냥 테왁 정 들고, 이것도 예, 좋아.

A : 으

Q : 막 좋아허지 않읍디과 게 예, 그것만 해도 예? 으응, 숨비소리에 대행 한번 곶아줍서, 숨비소리

B : 숨비소리는 물질 허당 보민 지치민 자연적으로 물 우티 올라오민 “호오이”허영 나옵니다 게 자연적으로.

A : 경허민 시원허고

B : 경 해부러야 또 다음 내려가젠허민 시원허게 허여그네

Q : 거문 계속, 숨비소리를 허여

B : 예, 한번 갔당, 물아래 갔당 올라오민 숨비소리 계속

A : 호흡 시원하게 막 해뿔 내려가곡, 해뿔 내려가곡
Q : 여기 바당은 깨끗하지 예?
B : 예
A : 예
Q : 바당 청소라든지 갯뿔이는 어떤 식으로 햄수과?
A : 갯뿔이는 우린 안해보고 예, 갯뿔이는 그 옛날에 텔레비에 보난, 천안에 그 저 막 기름
비와부난, 갯뿔이 허는 거 막 풍풍이 해다그네 막 베끼고 허는 거 보연게 마는
Q : 여기 무 지충이니 뭐니 그런 거 엇우과?
A : 우리는 한전 오염때문에 지충 엇우다.
B : 옛날에 툷 혈때 해놔수다. 툷 혈때 지충 캐고
A : 한전 오염때문에 지충도 엇고, 툷도 엇고
B : 이젠 툷 엇어부난
Q : 아, 이젠 엇어부난
B : 응
Q : 이 디가 어느 바당에 와신고, 물속에서 작업허당, 영 들여다보는 거는 어떤식으로 알아집
디과? 여기는 바당이 크지 안허니까 쉬울건가?
B : 아니, 계속허는 바당이난 어느 바당, 어느 바당 알아집니다게.
Q : 물 속에서 다 알아점수과?
B : 예.
Q : 물 우에 왕 알아점수과?
A : 물 속에서도
B : 물 속에서도 알고
A : 우에서도 알고
Q : 왜
B : 물질 허는 바당, 동텃여여 섯어랭이여여, 서텃여여, 남바우여,
A : 가운데도랭이
B : 가운데도랭이,
A : 이름은 엄청 하우다. 통바우, 뭐
B : 바당 일름이 다 잇어.
A : 놀여여. 뭐, 잘도 하
B : 자기 또 잡는 구역이 잇어 양? 이녁이 물건 가고 싶은 디가. 계민 어느 여 가켄허명 가
곡, 경 험니다.
Q : 그 여를 곱이덜 안가고?
B : 곱이 갈 때도 있주마는 또 피허영 갈 때도 있곡
A : 거의거의 다 붙으니까 거의거의 멧메타 간격 엇이 그저 탁탁 붙으난 해녀덜이 이 해녀
요기 있으면은 우린 요만이도 강 잡을수도 있곡, 또 해녀덜이 너무 많이 붙으면은 복잡허
여그네 못해.
Q : 근데, 저도 대평리를 좋아허는게 예, 서로 다 그거를 공유를 헐게. 나는 어느 바당 가겨,
그 그디간 보난 뭐 잇어라. 뭐 이런 것들이
B : 다 곱읍니다.
Q : 잘, 서로가

A : 소통, 하나의 소통
Q : 잘되는거 닳아
B : 어디간 보난 구제기 하영 올라서라게
A : 응, 소통
B : 널랑 그디 가게, 그추룩 허여
A : 특히, 저 아이는 저, 어저께 요새 성계허명도 “아이고, 언니네 어느방당에 성계 하십디다. 어딘 얹아십디다. 아이고, 오단보난 오단에 성계 여문디 가르쳐신디 아고, 물 밑에 어두 와부난 못 찾읍디다” 허곡 다 곱읍니다게. 경허고 성계헐 때 곱은 땀 죽허게 거의 비슷허게 다허영 헉니다게.
Q : 아, 언니네 그런게
A : 소통
Q : 다른 데 보다 소통허면서도 이 헉조허는게
A : 아, 우리 어촌계 해녀덜은 저 단결은 잘 됩니다게.
B : 다 경 헉니다게.
A : 나이가, 나가 나이가 어려도,
B : 이녁만 많니 허젠 허지도 안허고
A : 나이가 드신분이라도 훈 밧덜로 모입서 허은 딱딱딱덜 모이고, 또 나가 영 정 해야 됩니 다 허면은 저 건의 거부 안헉니다게.
Q : 우미도 엇고
B : 우미도 엇고
A : 우미 조금조금 먹을거, 이녁 먹을거 조금조금 여름 나민 해웁니다. 조금조금
Q : 몸도 엇고
B : 몸도 엇고
A : 보말 잇우다. 보말. 보말 조금 나오고
Q : 보말은 어떻 햄수과, 보말?
A : 보말은 성계 끝나민
B : 성계 끝나민
A : 문어허곡, 보말 잡으레 데니곡, 또 이제 저 고기 낚으는 미끼 저, 기드랙이 기드랙이 기드랙이
Q : 기드랙이
A : 기드랙이 잡아다그네 이 다금바리 낚으는 사름덜 갓돔 낚으는 사름덜 사가곡 경험니다게.
B : 기드랙이가 비싸수다게.
Q : 거드랙이
A : 어, 거드랙이, 기드랙이. 우린 기드랙이렌 해났주게.
B : 옛날엔 그거 잡앙 막 데껴불고 해신디, 이젠 어느절에
A : 막 비싼게
Q : 막 비싸고
B : 하나에 천원
Q : 보말은 수드리파, 보말?
A : 물질허명
B : 수드리도 있고, 보말도 있고

Q : 수드리, 수드리가 많이 잡힙니까?
 B : 예, 물질허명은 수드리. 멧기로 정도는 아니고
 A : 옛날엔 막 하신디 것도 옛언게 이젠
 Q : 보말도 하도 잡아부난
 A : 하도 잡아부난 옛언
 Q : 군소는?
 A : 군소는 있고, 군소는 잇입니다. 예, 하영은 엇어도 조금조금은 있고.
 Q : 군소하고
 A : 주로 엇인거는 툃허고 이, 먹는 몫, 먹는 몫 엇고 이, 우미도 이녁 먹을 거 조금조금 허고, 대량으로 해그네 뭐 공판허거나 그런거 못허는 거주.
 Q : 저기, 해녀해서 가장 보람있는 거는 뭐꽈?
 A : 해녀한테 보람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저 직장보다 마음이 편안허고, 마음이 편안허고, 그래도 해녀라는게 하나의 직업으로, 직업이니까 바다에 가는 게 참 즐거워. 가면은 이 집에서 스트레스, 근심 있는 것도 바다에 가면은 짝 풀려.
 Q : 여기 바당이 잘도 편안허여
 A : 예, 짝 풀려, 풀려가지고, 우리가 해녀 했다는 것이 참 보람 느낍니다게.
 B :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게
 A : 지금은, 옛날에는 그래도 좋았지만은 지금은 더 좋아예. 이 나라가 고마와가지고 이. 정부가 고마와가지고 이. 유네스코 등재로 시작허영 기타 등등, 해녀종 다 나오지, 이젠 해녀덜은 옷 다 나오지, 해녀덜 연금 다 주지, 이제는 뭐 점점 우리가 해녀덜 보람이 느껴수다.
 Q : 그 저기 닷도 가정다념잔아 예?
 A : 예게.
 Q : 닷은 어디 강 내리웁니까?
 A : 닷은 요새는 막 쇠닷덜 햄서 양? 쇠 삼바리굴이 이렇게 갈쿠리 닷은거 헌거, 그건 아무데나 픽 던지면은
 B : 걸어져.
 A : 조금조금 덩기면은 지가 지대로 툃툃툃툃 걸려, 걸리면서 허고, 그거 안헐 때는 둥그런 망아리 조그마헌거에다 돌멩이 집어 낵예, 이렇게 보다가 이런 밋밋헌 넉지⁵⁾에 놓면은, 빨리 곳어⁶⁾버리면은 이런 넉지 말고 움탕움탕 흠텡이에다가 같은디 그런데에 콕 집어 넣든가, 아니민 이거, 여면은 여 밑으로, 여 밑으로 집어 넣면은, 물이 막 가도 이디서 올라오지 못허영 좀 의지가 되게
 B : 걸리주
 A : 그런식으로 허고
 Q : 뭐, 즈락이라든지 이넌 건 안 쓰잖아.
 B : 아니, 즈락도 씽니다. 즈락허민 즈락에다가 신발도 담고, 그디 기드랙이 잡아널고, 전복, 해삼도 잡아그네 그레 널고,
 A : 다른 바다에덜 보민 저 모슬포레나, 가파도레나 가면은 이런 앞이 즈락 차그네 물건 막 잡아놔 양, 경헌디 우리 해녀덜은 그런 거 안헝니다. 즈락은 안 차그네 그냥 망아리에 콕

5) 바다 속에 있는 바닥 돌

6) 곳다 : 큰물이 휩쓸고 지나가다. 큰물의 흐르는 물에 끌려가다.

잡앙 올라 멍 갖당 놓주

B : 손에 잡아 왕 올라와그네

A : 즈락 창 안허고게

Q : 옛날에는 테왁 망사리는 어떻게 만들었지?

A : 옛날에는 테왁 망아리 헐 때는 우리 할아버지네 잇일 때 보난, 짝 잇우게 짝. 짝으로 막 두드령, 짝 두드령 노끈 멘들앙, 그걸로 해그네 망아리 멘들앙, 미역 헐 때 미역 망아리 허고 해수다.

B : 이젠 나이롱 망사리가 나완 낭.

Q : 망사리가 컷지 예, 그 땐 예?

A : 예 커마썸, 미역 망아리 허다그네 딱로 배추 막 담아그네, 바닷물에 가그네, 짠물에 강 배추 담앙 절였다그네 건져오곡, 그 망아리에 경허곡, 우리 할망네영 같이 영 사난

B : 테왁은 옛날 콜락

A : 콜락 콜락

Q : 콜락테왁이영

A : 미역 허채헐 때 곱은 때, 콜락테왁으로 문딱 허민, “들라” 호각 불기 전이, 앞이 막 앞이 만 갈라고 해너도 있주게 아무디도. 경허면은 그 바당 지킴이덜이 몽둥이 들령 갔다그네 어떤 때는 거 두드령 벌러볼기도⁷⁾ 허여.

Q : 벌러볼면은 그 사름 작업

A : 그사름 작업 못 허여.

B : 작업 못 허주게.

A : 작업 못 허게 햄주게. 열받게 햄덴 해그네

Q : 경헌디 그 옛날에 록테왁 헐 때는 그 거 까져볼문 어떻습니까?

B : 까져볼민 또 새로 해야주게

Q : 아니게, 여기를 나오젠 허문 어떻 나옵니까?

A : 아, 경헌디 우리 물질헐 땐 콜락 까져그네 막 힌 건 엇어.

Q : 한번 엇어?

A : 예, 아무래도 조심허고

B : 그런 건 엇어

Q : 조심허고

A : 응, 조심허영

B : 우리 배울 때, 콜락 테왁 난 짚어보지 안허여수다. 스폰지 테왁 나온 때 물질 허연

A : 콜락 테왁은 짚었주만은 저 스폰지 옷 안입어부난 열영 오래 살지 못허주게. 게민 조금 조금 사난, 경 두령박도 까지지 안허여.

Q : 뭐, 그럭저럭 되는 거 닳수다. 그 무시겨, 오늘 물질 가겨 뭐 허켜 허는 거는 서로 회의 덜 허고 허잡아 예?

A : 아니, 물질허는 거는 몰때. 딱 몰때로 딱 한조기⁸⁾ 날부터

B : 날자를 정허연 허난

A : 딱 한달에 한조기 날부터 허여그네 한조기, 악근조기, 분할, 혼물, 두물, 서물, 너물, 다섯 물. 딱 끝나고, 여섯물, 일곱물, 여덟물, 아홉물, 열물, 열한물, 열두물

7) 부숩버리기도

8) 조금

Q : 쉬고
A : 쉬고, 그 다음에 또, 한조기부터 허영 허고
Q : 아까 한번 다시 세봅서
A : 한조기, 악근조기
Q : 분할
A : 분할, 혼물, 두물, 서물, 너물, 다섯물. 경허고 여섯물, 일곱물, 여덟물, 아홉물, 열물, 열
 혼물, 열두물꺾진 안허고
Q : 안허고?
A : 예. 육일은 작업, 칠일은 작업 안하고, 팔일은 작업하고
B : 팔일은 작업하고
Q : 무조건 작업
A : 예, 무조건. 한달이민 십육일 작업하고, 십사일은 놓고
Q : 여기서는 여기 갯, 그 저기, 여기 본향당 할망당
A : 할망집
Q : 거기 감지 양?
A : 예, 예예
Q : 거기 본향당 낭도 막 크고 막 멋져져서라
A : 예, 이제 그디 덩깁니다.
Q : 요즘 예, 저는 예, 할망당을,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할망당에, 그거를 한번 짝 조사를
 했거든 예, 경행 그 할망당도 보존을 해야 됐던 거 닐아. 여기도 아름답더라고
A : 예, 여기 아름답니다게.
Q : 이게, 저기 어디서 갈라와선게게. 저 예래 본향에서
A : 예게 예게,
Q : 봉가온 할망이라서
A : 예게, 다섯 성제해그네, 이 우리가 큰 딸이렌 험니다게.
B : 이 당 할망이
Q : 예래 본향이 큰 딸이렌?
A : 아니, 여기가
B : 이디가 큰 딸
A : 큰 딸이렌 허여.
Q : 아, 이본향당 할머니가
A : 열리⁹⁾서 갈라온게 아니고, 우리 본향이 열리 갈라 가수다게.
Q : 열리로는?
A : 예게
Q : 여기는 어디 큰딸이렌?
A : 우리는 저 덕수로 행 왔젠 험니다게.
Q : 덕수로?
A : 경 왔젠 허여. 어멍 할망덜이나 자세히 못 와도 여기 본향은 큰딸이엔 욕심이 많아그네
 앗아 만리 사천리라고 앓아서 만리를 보고, 사면은 천리를 본덴헨에, 갈 때는 할망집이
 갈 때는, 나는 할머니 이, 우리 성할머니가 워낙 정성을 해나난 할머니난, 할머니가 다

9) 예래동

시켜주난, 어머니는 정성을 잘 안하고, 할머니는 정성을 허난, 어릴 때 고평아준 거를 기억나 예. 할망집이 갈 때는 옆도 베리지 말고, 앞도 그저 앞으로만, 그냥 옆으로 사그네 가고, 항상 짐을 구덕에 정 가곡, 올 때는 그디 다 놔 둠 오는 식으로 확 들러그네 오고, 이런식으로 헌덴 허멘 양, 그거 할망식으로 하는 디, 요새 사름덜은 경 안허여 양, 경 안허여그네 허는디, 그추룩 허곡, 이제 다 할망집이 갈 때는 절대 이런 밧디, 옆이 가당 뭐 아무리 배고파도 뭐 하나 타 먹거나, 올 때 뭐 타 먹거나 허지 말렌 험니다게. 할망집이 갔다 올 땐. 경 행 우리 할머니가 시켜주멍 해신디, 그거 침 이 할망집인 아무 많이 즈손덜이 가도 배가 커부렁 그렇게 좋아헌덴 마썸. 아무 많이 와도 반가워만 헌덴. 예, 아무 많이 와도. 거난, 육지서든, 제주시서든, 이디 본토 해난 사름덜은 여기 다 와도 오는 낙 이 즈손은 그렇게 존덴 아까워 헌덴 험니다. 할망이. 우리 할머니 산 때 다 고평아질 예, 앓아그네 만릴 보고, 사천리를 보난 심방¹⁰⁾이 엇어도 가면은 일름, 속으로 그자 일름 거 느령 뭐 허면은 다 할망이 안덴.

Q : 그디 청소는 잘 햄수과?

A : 청소고는 거는 심방이 왕 험니다게. 아무나 못행 예. 아무나, 아무나 그디 건드리지 못행 해그네, 그런디는 예. 거난 심방이 저 마을에서 해그네 허고, 우리 저 심방이 완수다게,

Q : 그 저 고덕운 심방?

A : 아니아니

B : 아니

A : 저, 대포 심방 완수다. 매점에 이제

B : 작년부터사 왔주

A : 정월에 오고 양, 유월 음력 유월에 오곡, 동짓달에 오곡 행

Q : 아, 심방이 깨끗하게 잘허는구나. 대포리 본향당도 간 보난 예, 깨끗하게 잘

A : 예, 그 본향 그 선 심방이우다.

Q : 아, 그 심방?

A : 예, 그 심방 옵니다.

Q : 거른 언제 언제 감수과?

A : 음력 유월, 동짓달, 정월. 경 행 험니다. 경하고 자기가 집안에 일 있든가 마음이라도 뭐 허면은 가그네 술이라도 사다그네 가그네 절 삼배라도 허고 오고 경험니다.

B : 삼월달에 가는 사름도 있고 경

A : 그렇게 험니다.

Q : 정월에, 유월에, 시월에

A : 아니 아니

B : 유월허고 정월엔 상들이난 갑니다.

A : 동짓달에도 갑니다. 동짓달. 거난 할망집이 덩기는 것도, 다 양, 뭐 팔월 멧질, 정월 멧 허듯이 다 뭔가 것도 잇입디다.

Q : 뭐 애기들 아파도 강, 그 디 강

A : 예,

Q : 기회만 되민

A :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느경 허집니다. 조상들헌테도 뭐허면은 입 속으로라도 조상들 도와 줍센 허곡, 난 항상 허여집니다. 우리 아기덜 저추룩 뭐해가면은, “야, 속섬허라. 니네덜

10) 무당

알게 모르게 구름발로 다 다니명 조상덜이 도와줍저. 니는 아무소리말라”

Q : 어촌계장님 엄청 기도한? 너무 달라진 거 닐아.

A : 무사?

B : 그런 물질이 흰헝니다게. 우린 얼렁뚱뚱 허는디

Q : 옛날은 경 안해난 거 닐은디

B : 아, 옛날부터

Q : 아, 경 해나수과?

B : 잘헝니다게

Q : 또 다른 모습을 밤서

A : 옛날엔 이추룩 앗앙 이추룩 자당 보민, 안 이쁜 아이주게

Q : 경 햄구나. 나도, 영 굴아도 그걸 혼 귀로만

B : 옛날에 어릴 때주만은 할망덜이영 뭐허난 옛날 물질 다 압니다게.

A : 거난, 이거 영 정 허다보면은 이렇게 안 적어도 예, 아까 좌혜경 박사님이 저 그 할망덜 신디 가난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끌린덴 허는 식으로,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허면은 그 거 해나난, 자해적(?) 다 허여그네 알아지는 거라.

Q : 그 어머니도 해녀여수과?

A : 예게, 할머니도 해녀, 어머니도 해녀. 어머니 우리 곶이 곶이 해녀덜 허단 돌아가셔수다 게.

Q : 언니네도 있고?

A : 언니 엇우다. 난

Q : 아, 혼자

A : 아니, 딸은 형젠디 동생 밑에 동생. 나가 큰 딸

Q : 그 밑에 동생은 물질 안 허고

A : 물질 안 허고. 갠

Q : 큰 딸이시로구나.

B : 옛날에는 할머니여 어머니여 서이덜 문딱

A : 보통이주. 야네는 시어머니도 잇우다. 물질허는.

Q : 시어머니도 잇어?

A : 시어명 잇어. 이제

Q : 연세는?

B : 이제 구십

Q : 구십인디 물질

B : 아니, 아직 이젠 안 허

A : 성게 꺾주, 그쪽 꺾니다. 보말잡으레 덩기고

Q : 곶이 까고예, 건강허지 예

B : 시어머니영 곶이 물질도 허곡, 건강해수다.

A : 곶이 살암수게, 친정 어머니도 물질허곡, 잇곡, 계시곡.

Q : 아, 지금 계시고?

B : 친정어명도 물질 다 설러수다¹¹⁾. 아판

A : 친정어머니네 이걸 허는 거 해주십서 허젠 두번이나 간 보난 엇언게 엇언. 놈이 마늘까레

11) 설오다 : 하던 일을 끝내려고 정리하다.

땡기는 건 몰르고, 강 보난 옛이난에 에에 허고 치왔주게.

Q : 할머니네 보다 계장님네가 낫수다게

A : 우리도 그 삼춘네영 우리 곶이 물질 다 해도 성할망이 앓안 몬 이것 저것 곶아나난 난
그거를 어릴 때 곶아난 거, 경허난 어릴 때 곶아난 거 다 알아지는 거.

Q : 그 어머니 그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건가?

B : 에에

A : 할망?

B : 못합니다.

A : 몰라. 귀 막아부난

B : 귀 막앙 잘 알아듣지 못 허고 앙